

전남도, 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등 '에너지 수도' 현안 건의

전라남도는 22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등 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취임 후 첫 호남 방문 일정의 하나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국회의원, 김동철 한전 사장, 윤병태 나주시장, 박진호 한국에너지공단 총장대행 등 지역 에너지 생태계를 이끄는 주요 인사 15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남에 대한 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임을 강조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과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인센티브를 토대로, 에너지 분야 특별법에 필수 특례가 반영되도록 기후부의 관심과 역할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행정통합과 관련해 태양광 50MW, 해상풍력 100MW 이하 발전사업 인허가권의 특별시 이양, 해상풍력 항만과 배후단지 등 인프라 지원,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내 직접전력거래 활성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또 재생에너지 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2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 기후부 장관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논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특례 사항 반영 지원 요청

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계통 포화 문제의 조기 해소를 위해 단기 과제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대폭 확대, 한전의 허수사업자 정비, 노후 송전선로의 신속한

교체를 통한 계통 여유 확보를 요청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 시기의 조기화, 분산에너지 특화단지의 송·배전 설비 구축에 대한 국

비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기후부와 한전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역대 최대 2000억 시행

지난해보다 300억 증가... 광주은행 등 금융기관 7곳 참여 시·광주신보-은행권, 민생경제 회복 한 뜻 '특례보증 협약'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용자 1년간 이자 3%~4% 지원 4년새 2배로 확대... "힘겨운 소상공인 경영 안정 버팀목"

광주시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700억원보다 30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경제 한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영구승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일선 광주은행장, 박승현 하나은행 광주금융센터지점장, 장창용 KB국민은행 충청호남영업추진그룹 부회장, 임철현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김국환 신한은행 호남제주본부장, 황우열 카카오뱅크 여신사업본부장, 윤석하 우리은행 광주전남제주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광주시와 금융기관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조성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41억원)과 이자지원금(68억원)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는 광주시와 은행권이 총 144억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상반기 1500억원, 하반기 5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상반기 보증 규모 가운데 500억원은 도시철도2호선 인접 23개 동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한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3~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중·저 신용자(신용평점 839점~350점)는 1%를 추가 지원해 최대 4%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용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모든 업종이다. 대출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가능하며,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2년·4년·6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 코픽스+1.5~1.6% 또는 CD 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부터 신청·심사·보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자동 심사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보증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6일부터 보증 한도 소진 때까지 시행한다. 특례보증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보증드림' 앱을 통해 재단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영걸 경제장업국장은 "이번 특례보증 확대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 지원을 비롯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종팔 기자

농어촌공 전남본부, 지역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사업에 3,375억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2026년도 농지은행사업비 3,375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영농기반 확보와 은퇴농가 노후보장에 적극 나선다.

총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72%)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전년도 1,334억 원 대비 83%이상 증액된 2,439억원을 확보하여 우량한 임대농지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초기 농지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도 전년도 29억 원 대비 크게 증가한 9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청년농지원을 강화할 계획

이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308억원,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사업은 195억 원을 투입한다.

금년에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그동안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

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최근 농지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영길 기자

구분	비율	수수료 부담	개선
농지임대	2.5%	면제	면제
농지연금	5%	면제	면제
농지매입	100%	면제	면제

상담/문의 1577-7770

전라남도는 도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예산을 신속 집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도로 정비사업에 1천517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올해 57개 지구, 총 210km 구간의 도로를 정비한다.

이 가운데 화순 원화-효산(1단계) 등 7개 지구는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구간별 개통을 통해 도민 생활권 이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순천 선암사 진입

전남도, 도로 정비에 1천517억 투입

57개 지구 210km·접도대교 등 해상교량 4곳 추진

도로 등 4개 지구는 신규 발주하며, 미개설 도로 설계비 59억 원도 편성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선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기반권 보장을 위해 해상교량 4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진도 접도대교는 올해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는 준비를 마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완도 소안-구도 연도교는 입찰을 거쳐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여수 금오도-월호도 해상교량은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금오도 일원 노후 지방도 우선 정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 3년 동안 연간 2천150억 원을 투입해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교통 수요 변화에 맞춰 지역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 전남으로 도약하려면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지역과 지역, 섬과 섬을 촘촘히 잇는 도로망을 구축해 산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 사과